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건축학과	학 번	201**485	성 명	류한진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일본	파견대학	수도대학동경(TM U)	파견학기	2015년 2학기
소요경비	항공료 50만원 내외 기숙사 비용 210만원(월 30만원 + tax)				
주거	대학교에서 제공해준 히노시에 있는 셰어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룸메이트	3명에서 한 곳에서 지냈으며, 각각의 방이 있어서 개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좋았습니다. 또한 라운지에서 다 같이 항상 식사하고 파티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다른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학생 혹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였고, 도쿄도립대학교에서 이름을 바꾼 곳으로, 공립대학으로 대부분 도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류원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인 스텝도 계셨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유학생 하나하나 신경써주고, 필요한 상담을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 이었습니다.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여행을 기획하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저녁에 다 같이 요리하여 파티를 하거나, 라운지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기숙사 도우미 학생들이 매달 한번 씩 작은 행사를 하여 파티 혹은 근처로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주로 전공과목 멘토 학생보다, 기숙사 도우미(R.A.)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멘토의 경우는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전공 수업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교수님을 함께 뵙고 수업이 힘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RA같은 경우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나 기숙사 생활에서 불만 사항 등 일본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많이 주고 매번 만나기 때문에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공	전공과목은 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어 수업이 있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있는 수업이 많다 보니, 전공과목을 확실히 이수하고 싶은 경우는 일본어 실력이 N2급 정도의 되어야 수업을 이해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원에서도 가능하면 N2급의 성적 이상의 학생들에게 일본어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듣고 말하기가 가능하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멘토 학생에게 물어보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을 듯 하였습니다.
수업 스케줄	보통 한 과목이 1시간 30분씩 수업을 하고, 1교시, 2교시의 개념으로 보통 1,2교시 연강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 건물 위치를 고려해서 쉬는 시간동안 이동할 수 있지만 한다면 다양한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파견대학에서 제공해준 학생증을 통해서 입장료나 버스 승차비용 등을 학생 할인으로 약간 받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중고생할인과 같은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SIC카드 활용	
영어공부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생활 한 학생들이 영어권에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회화는 늘 수 있었습니다.
여행	주말을 통하거나 중간에 있던 겨울 방학을 통해서 도쿄 안에 있는 관광지를 포함하여 홋카이도, 후지산, 나고야 등 다양한 곳으로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교통	일본은 전철이 편리하다보니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학생 정기권을 끊을 수 없다보니 한 달 사용 금액의 절반은 교통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날씨	한국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매우 덥지도 않았습니다.
해외인턴	
추신	한국과 생활하는 것이 비슷하고 같은 아시아 지역이다 보니 날씨나 환경이 비슷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파견대학의 학생들 및 일본인들이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능하면 파견 전 어느 정도 일본어로 일상 회화는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있으면 생활하는데 더욱 편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점	파견대학 입학허가증이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자신청을 출국하기 직전까지 못하게 될까봐 하는 불안함이 없지 않아있어서 파견대학에서 조금만 빨리 초반 서류를 주었으면 했습니다.